

삼성전자, '삼성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공식 오픈



삼성 휴대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인 '삼성 애플리케이션 스토어(Samsung

Application Store)가 드디어 정식으로 문을 연다.

삼성전자는 '삼성 애플리케이션 스토어'가 오는 9월 14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개국에서 공식 오픈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삼성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다음달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소비자가전 전시회인 IFA 2009에서 옴니아2, I8910HD 등에 탑재하여 선보일 예정으로 서비스 국가도 독일, 스페인 등 30개국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삼성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부터 7개월 동안 영국에서 '삼성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베타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소비자, 개발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해 완성도를 높였다.

EA, Gameloft, Handmark, Pearson Longman 등 세계적인 애플리케이션 제작사들이 참여해 심스 메트로폴리스, 스파이더맨, GTS 레이싱 등 고급 게임 뿐만 아니라 롱맨 전자사전, 시력측정기, 스트레스해소기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며 연말까지 2,0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베타테스트를 통해 삼성 휴대폰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강했으며 애플리케이션을 PC에 다운로드한 뒤 유선으로 휴대폰으로 옮기는 복잡한 과정 없이 휴대폰의 메뉴를 통해 편리하고 손쉽게 무선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게임, 엔터테인먼트, 헬스, 전자책 등 8가지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삼성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전용 UI를 휴대폰에 탑재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중심으로 이미 운

영 중인 휴대폰 S/W 개발자 사이트인 '삼성 모바일 이노베이터'와 판매자 지원 사이트인 '삼성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셀러 사이트'를 연결하는 에코 시스템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미디어솔루션센터 이호수 부사장은 "앞으로 소비자, 사업자, 개발자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혁신적인 원터치 웹프린팅으로 유럽 공략

삼성전자가 오는 9월 4일(금)부터 9일(수)까지 6일 동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09에 '원터치 프린팅 기능'을 장착한 혁신적인 모노 레이저 프린터와 복합기 신제품 총 7종을 선보여 유럽 소비자 사로잡기에 나선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선보이는 모노레이저 프린터·복합기 신제품은 원터치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장착, 버튼 하나로 모니터에 보이는 화면 그대로 출력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모니터에 보이는 그대로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화면캡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PC에서 인쇄명령도 따로 수행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이다.

또한 버튼을 길게 누르면 모니터에 맨 마지막에 활성화된 화면만 골라 출력할 수 있다.

웹에 있는 콘텐츠를 원하는 부분만 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삼성전자의 '애니웹 프린트'를 활용하면 보다 쉽고 간편한 웹페이지 출력이 가능하다.

웹 서핑을 하는 도중 마우스로 원하는 부분을 선택, 간편하게 출력이 가능하고, 자체 스크랩 보드를 제공하여 스크랩한 이미지의 복사·자르기·크기 조정 등의 편집 및 저장도 가능하다. '애니웹 프린트' 프로그램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며,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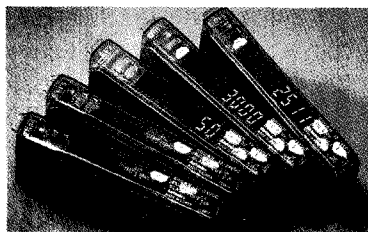
이번에 소개되는 신제품은 프린터 ML-1916K 외 3종, 복합기 SCX-4610K 외 2종의 총 7종류이며, 원터치 프린팅 기능 외에도 작은 크기와 편의성, 경제성을 모두 갖춰 개인 사용자 및 소규모 사무실 사용자에게 적합하다.

모노레이저 프린터 ML-1916K는 작고 유려한 디자인에 분당 18매의 출력 속도를 가진 개인 사용자를 위한 제품으로, 고품질의 블랙 컬러를 사용해 삼성 프린터의 디자인을 이어 가면서도 패턴이 들어간 소재를 새롭게 사용해 지문이나 스크래치에 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했다.

보다 고성능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해 분당 24매의 출력 가능한 ML-2525K 및 프린터기의 공유가 필요한 소규모 사무실 사용자를 위해 네트워크 기능을 갖춘 ML-2580NK 모델도 함께 선보여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출력·복사·스캔 기능을 갖춘 모노레이저 복합기 SCX-4610K은 A4 기준 분당 22매의 출력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삼성 프린터만의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인 블루 컴퍼스 네비게이션을 채택해 한층 더 쉽고 간편한 조작이 가능하다.

출력·복사·스캔 기능에 팩스기능이 추가된 SCX-4623FK/4623FN은 PC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팩스로 보내거나, 종이 출력없이 PC로 팩스를 받을 수도 있어 시간 절약은 물론 불필요한 종이 낭비도 막을 수 있다.

### 오토닉스, 듀얼 디스플레이 기능 탑재 BF5시리즈 출시



이 기능을 탑재한 광파이버 앰프 BF5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했다.

디스플레이 방식에 따라 싱글과 듀얼의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된 BF5시리즈는 지난 3월 국제자동화종합전에서 시제품이 공개됐다.

센서·제어기기 전문 기업 오토닉스는 2일 국내 최초로 수광량(빛을 받는 양)과 설정값을 동시에 표시하는 듀얼 디스플레이

이번 BF5 시리즈의 듀얼 디스플레이 모델은 기존에 외산 제품에만 있던 것으로 국내에서는 오토닉스가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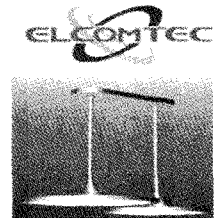
또 BF5시리즈는 아주 미세한 물체도 검출이 가능한 국내 업계 최고인 1만분의 1의 고분해 능력을 실현해 세계 수준의 검출 성능을 구현했으며 오토파워컨트롤(APC) 회로 채용으로 온도 변화 및 장시간 사용에 따른 열화에도 일정한 검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환기 오토닉스 대표이사는 “오토닉스가 지난 1987년에 광파이버 센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래 듀얼 디스플레이 기능의 광파이버 센서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면서 “다시 한번 국내 광파이버 센서 분야의 기술 진보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 LED조명업체로 거듭난 ‘한성엘컴텍’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업 한성엘컴텍은 원래 오디오 부품 및 가정용 고압 콘텐서 제조업체로 출발해 현재는 LED 백라이트유닛(BLU), 전계발광(EL), 키패드와 소형 카메라모듈(CCM)을 생산하며 휴대폰 부품사업의 선두 업체로 우뚝 섰다.

현재 이 회사는 또 다른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LED조명 전문기업으로의 탈바꿈을 하고 있다.



LED조명은 뛰어난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 효과로 인해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핵심 축으로 LED 조명이 떠오르면서 관공서를 중심으로 점차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성엘컴텍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성과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유럽, 미주, 중동과 LED조명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잇따라 체결한 뒤 올 들어서는 일본과 중동 등에 수출을 시작했다. 또한 영국과 일본, 필리핀과도 연이이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 고호석 사장은 “그간 쌓아온 기술력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기에 수출이 가능했다”면서 “이는 과거

휴대폰용 조명인 EL, BLU 등의 기술 축적으로 기술개발에 가속도를 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성엘컴텍은 지난해 BLU사업을 매각하면서도 연구소 인원을 그대로 유지해 LED조명 개발에 매진토록 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올 초 LED투브형조명(형광 등 대체용) 컨버터가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일본전기 통신형식승인(PSE)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기존보다 30% 정도의 방열 개선 효과를 통해 LED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특허기술 2건을 연이어 취득했다.

지난달에는 LED 바조명과 형광등 대체용 LED조명에 적용되는 특허를 취득했다.

지난 2월에 개발한 LED전구는 평면 LED조명의 한계를 넘어 사방으로 빛을 발산, 기존 백열등에 매우 가까운 외형과 배광 형태를 구현해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조명과 가로등, LED투광기, 스탠드조명에 이르기까지 효율성과 미적 감각을 갖춘 다양한 제품들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할로겐 대체 램프 및 터널등, 가로등 등의 제품들도 각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발, 생산하고 있다. 고 사장은 "LED조명 사업은 필립스, 마쓰시타, 오스람 등 글로벌 조명 회사들과 견주어보아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면서 "빠른 기술 개발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세계 LED조명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강조했다.

### LG전자, 블랙라벨시리즈 4탄 '뉴 초콜릿폰' 출시



LG전자는 2일(현지시각) 저녁 영국 런던 '디자인박물관(Design Museum)'에서 LG전자 관계자 및 현지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블랙라벨시리즈 4탄 뉴 초콜릿폰 출시 기념행사를 가졌다.

뉴 초콜릿폰은 기존 히트작 초콜릿폰의 극대화된 단순미를 계승하면서도 최초로 21:9 비율의 4인치 화면을 채택한 후

대폰으로 '고만고만한 폴더치폰 디자인'의 틀을 깬 파격적인 외관이 최대 강점이다. LG전자는 블랙라벨 시리즈의 4번째 제품인 뉴 초콜릿폰을 영국을 시작으로 9월 중 유럽 및 한국, 10월까지 아시아, 중동, 북미와 중남미 등 전세계 50여 개국에 출시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이 제품이 휴대폰 디자인 역량의 결정체로 총 3,600만대 이상 팔려나간 기존 블랙라벨시리즈의 성공신화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며 '첨단 패션 IT기기'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뉴초콜릿폰은 4인치 대형화면에 일반 극장 스크린 비율인 21:9를 적용, 기존 휴대폰에서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채택했다. 기존 폴더치폰 디자인은 16:9 비율 화면이 대부분으로 "폴더치폰 디자인 경쟁은 끝났다"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것.

앞면 버튼을 완전히 없애고 측면 버튼 수도 최소화해 '비움의 미학'을 극대화했다. 피아노 외관을 연상시키는 유광 검정색(Pure Black)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상/하단의 붉은 색 포인트로 감성미를 더했다.

앞면에 채택한 강화유리는 외부 충격에 강하며, 굽힘이 없어 항상 새 것 같은 LCD를 유지할 수 있다. 10.9mm의 얇은 두께는 손에 쥐기에 딱 알맞은 느낌을 전달한다.

이 제품은 21:9 비율 국내 최대 4인치 화면을 적용해 인터넷 사용, 문서 작업, 동영상 감상 시 획기적인 사용성을 제공한다.

옆으로 눕히면 PC 화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가로 스크롤(Scroll) 없이 시원하게 보며 모바일 인터넷 및 문서작업이 가능하며, 일반 극장 화면 비율인 2.35:1(21:9) 영화도 딱 찬 화면으로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듀얼 스크린(Dual Screen) UI'를 적용, 화면을 절반으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과 똑같이 목록과 메일 내용을 동시에 확인 가능하며, 음악 재생 시에도 앨범재킷과 음악목록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특히, TV에서 쌓아온 LG전자의 화면 보정 기술과 10여년간 축적해온 LCD 기술을 결합한 WGA급(해상도 800x45) 'HD LCD'를 적용해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즐길

수 있다. 'HD LCD'는 고화질을 상징하는 단어인 'HD'와 'LCD'를 합성해 명명했다.

뉴초콜릿폰은 명품 3D UI인 'S클래스 UI'를 적용해 쉽고 빠르고 재미있는 사용성을 제공한다.

또 '동작 숏컷(Gesture Shortcut)' 기능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화면에 'MP3 동작'을 'M'자로 기억시키면, 별도의 아이콘 누르지 않고도 'M'을 입력하면 바로 음악이 재생된다.

두 손가락을 이용해 사진이나 웹페이지 등을 확대, 축소하는 '멀티 터치'가 가능하며 '돌비 모바일'을 적용해 풍부하고 입체감 있는 음향효과를 즐길 수 있다.

슈나이더社 인증 5백만 화소 카메라, 언제 어디서든 무선 인터넷을 즐길수 있는 와이파이(WiFi), TV 등 가전과 영상이나 음악을 공유할 수 있는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기능을 탑재했다.

다빅스(DivX) 지원으로 추가적인 인코딩없이 PC의 영상을 휴대폰에서 바로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32기가바이트(GB)까지 확장 가능한 외장 메모리, 블루투스, GPS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LG전자 MC사업본부 안승권 사장은 "블랙라벨 시리즈는 늘 신선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유행을 선도해 왔다"며, "이번 뉴 초콜릿폰 역시 이전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업계에 새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 LG전자, TV 디자인 새 지평 열었다



TV의 화면과 테두리 간의 일반적인 경계선(border)이 사라져 TV 전면이 하나의 검은색 유리판처럼 보인다. 경계가 없다는 의미의 '보더리스

(BORDERLESS)'가 이 TV의 컨셉이다.

LG전자는 파격 디자인의 ▲LED LCD TV(SL9000, 47/42인치)와 ▲일반 LCD TV(SL8000, 47/42/37/32인치) 신제품을 4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하는 IFA 2009 전시회에서 일반에 첫 공개하고 3분기를 시작으로 세계시장에 순차 출

시할 계획이다.

화면과 테두리가 뚜렷이 구분되던 정형화된 디자인을 벗어난 데에는 LG전자의 여러 독자기술이 녹아있다.

무엇보다 TV 전면에 필름코팅기술을 적용한 것은 TV업계에서 LG전자가 처음이다.

이 기술(Film Lamination)로 LCD패널 전면과 테두리 부분을 같은 색상의 한 장의 필름으로 코팅하면 테두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스크린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또 빛 반사를 줄여 화질이 좋아지고 표면 긁힘도 방지가 된다.

LED LCD TV 인 SL9000 제품의 경우 보통 50mm가 넘는 TV 테두리 폭이 35mm로 줄어 같은 크기의 다른 TV보다 영상이 넓게 보이는 효과도 있다. 두께는 29.3mm에 불과하다.

CCFL(냉음극형광램프)을 광원으로 사용한 SL8000 모델은 ICM(Injection Compression Molding)이라 불리는 독특한 압축사출기법도 TV에는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 기술로 스크린의 평탄도가 높아져 화질구현이 보다 완벽해진다. ICM은 LCD패널 전면에 덧씌우는 필름을 최대한 얇고 평탄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필름은 플라스틱 재질이라 곡선, 입체감 등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은데, SL8000이 TV 상단과 하단이 곡선으로 처리된 것도 ICM 기술 덕분이다. ICM이 고난도의 기술이라 특별사출기가 필요하다.

이 제품은 지난달 유럽 최고 권위의 기술상인 '유럽영상음향협회(EISA) 어워드'에서 유럽 최고 LCD TV(European Best Value LCD TV)에 선정돼 주목을 받았다.

'보더리스(BORDERLESS)' 시리즈 2개 모델은 제품 하단에 인비저블 스피커가 내장돼 있어 TV 두께가 얇아지고 음질도 뛰어나다. 또 주변 밝기를 분석하는 지능센서 등으로 기존 LCD TV보다 전력소비가 최대 70%~80% 줄어든다. 블루투스가 가능한 IT 기기에 있는 음악, 이미지, 동영상 파일을 TV에서 감상할 수 있고, PC 안의 파일을 TV 스크린에 띄워서 보는 것도 가능하다.

HE사업본부장 강신익 사장은 "기술과 디자인의 진정한 조화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야심작"이라며 "프리미엄 브랜드를 강화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